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8월 19일)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부처님, 피해 없으신지요

역대급 태풍이었던 '힌남노'에 의해 경주 지역 불교문화재들이 피해를 입었다. 보물로 지정된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은 주변 토사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화재청은 9월 7일 경주 지역 현장시찰 및 점검을 시행했다. 사진은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을 살펴보는 문화재청 관계자들. **사진제공=문화재청**

태풍 힌남노에 세계유산 석굴암·불국사 피해

역대급 태풍이었던 '힌남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가 피해를 입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9월 7일 태풍 '힌남노' 관련 문화재 피해 상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주 지역 불교문화재와 사찰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경주 석굴암 석굴(국보)은 경내 진입로와 종무소 마당, 화장실이 훼손됐다. 경주 불국사(사적)는 극락전 기와가 탈락됐으며, 주변 수목이 강풍으로 피해를 입었다. 보물인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은 주변 석축과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보물) 주변 토사가 붕괴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석굴암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주 불국사와 기림사, 굴불사지에 대해서는 현장 정리를 시행했다. 또한 문화재 피해가 집중된 경주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9월 7일 시행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피해 직후 추가 피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람객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피해 문화재에 대한 응급조치도 시행 중"이라며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에도 피해문화재 보수 관련 편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선제 대응에 남부 지역 사찰 큰 피해 없어

불교문화재에 대한 피해는 발생했지만,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한반도 남부 주요 사찰들은 큰 피해가 없었다. 이는 사찰들의 철저한 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보운)는 태풍 힌남노가 예고된 직후부터 주요 전각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9월 5~6일 야간에는 소임자들이 교대로 순찰조를 편성, 밤새 도량을 돌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사는 태풍이 물러간 9월 7일에도 수말사에 연락해서 태풍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범어사는 "조사결과 안적사, 흥부암, 성주사 등 몇몇 사찰에서 경미한 피해가 확인됐고, 이를 총무원 사회부에 전달했다. 본사에서도 해당 사찰에 대한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주지 현문)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미디어아트 축제의 개막 행사를 연기했다. 폭우로 갑작스럽게 계곡물이 불어날 것을 염려해 도량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전각과 시설물들을 점검했다.

피해를 겪은 사찰도 몇군데 있지만 경미한 수준이다.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는 강풍으로 인해 기와가 일부 탈락했고 한라산 기슭에 자리한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도 일부 전각에서 기왓장이 떨어지긴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조계종 복지재단 이재민 돕기 긴급 모금

조계종은 이번 태풍으로 사찰 피해는 크지 않지만 이재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9월 30일까지 긴급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태풍 예고 때부터 전국에 운영하는 사회복지 산하시설에 피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피해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이번 긴급모금으로 모연된 기금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 물품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계종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태풍 루사와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기억이 생생하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상심이를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고 위로를 전하고 "피해보고가 있으면 신속하게 논의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풍 피해 이재민 돕기 긴급 모금은 9월 30일까지 온라인(하나은행 271-910006-64104, 예금주 :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02)723-5101

신성민·임은호 기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석학들 머리 맞댄다

한마음과학원, 9월 23~25일 한마음선원 본원서 국제학술대회

'뉴노멀 시대, 공생의 삶' 주제로
미국 등 8개국 석학 20여명 참석
인류 위기·종교역할 논의 예정
이스라엘·UAE 주한대사 특강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기후 위기 등 지구촌의 당면 문제에 대한 성찰과 공생(共生)의 실천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9월 23~25일까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캐나다·독일·이스라엘·아랍에미레이트·대만·아르헨티나 등 8개국 20여 명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한다.

3일간 이뤄지는 국제학술대회는 기조강연, 특별강연 2회, 발표세션 6개와 특별세션 1개로 구성됐다. 기조강연으로는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이 '만물만생과 통하는 한마음'을 진행하며, 특별강연자로는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주한대사와 압둘라 샤이프 알 누아이미 아랍에미레이트 주한대사가 참여한다.

발표 세션은 △현대사회와 종교의 실천적 역할 △생명 위기를 통한 미래의 성찰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 △관법 수행과 소통 △공생과 사회적 실천 △마음과 의학, 건강한 삶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사회와 종교의 실천적 역할' 세션에서는 △우리를 통합하고 분열시켜 온 팬데믹: 뉴노멀 시대에 상호연결과 화합을 창출하기 위한 미국과 후기성도의 관점(브렛 G. 샤프스 교수, 미국 브리검영대) △한국 현대사회에서 선불교를 가르치기 위한 대행 선사의 선법가 활용(청고 스님,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이 발표된다.

'생명 위기를 통한 미래의 성찰' 세션에서는 △2019년 팬데믹,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분석한 21세기의 패러다임(구스타보 아드리안 델 벤토, 아르헨티나 국가 의회 하원) △펜데믹과 죽음의 그늘속에서 영적 보살핌의 필요성(만프레드 후터 교수, 독일 본대학) △코로나 19: 어려운 문제, 어려운 해결책(던스턴 로비두 수사, 미국 세인트 앤셀름 수도원)가 소개된다.



혜근 스님 | 압둘라 샤이프 알 누아이미 | 아키바 토르 | 브렛 G. 샤프스 | 만프레드 후터 | 던스턴 로비두 수사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 세션을 통해서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 수행적 관점에서의 '가족'의 의미(정상만 교사, 파평중학교) △새로운 실천, 새로운 가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디지털 윤리의 관점(올리버 쾰르너 교수, 독일 슈투트가르트 미디어대학)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한스 큉과 대행 선사 제안 비교(혜유 스님, 독일 한마음아카데미 연구실장) △대행 선사 마음의 소리 없는 울림: 리듬과 패턴(김재영 교수, 서강대)가 발표된다.

'관법 수행과 소통' 세션에서는 △COVID-19 팬데믹 시대에 전문 번역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소통의 가교 구축(고효림 통번역사, 아르헨티나 한마음선원 부에노스아이레스지원)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지표 개발(유정오 박사, 진주교육대)가, '공생과 사회적 실천' 세션에서는 △전염병 시대의 부처님 가르침(치엔테 린 교수, 대만 츠지대학)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진정성 리더십의 가능성 연구(김영래 박사, 한마음과학원)가 각각 소개된다.

'마음과 의학, 건강한 삶' 세션에서는 △붙들면 죽고, 놓으면 산다: 관 수행법, 마음(리까르도 다니엘 블랑꼬 의사, 아르헨티나 의료협회) △암 치유를 위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장미란 박사, 연세대 의과대학, 한마음과학원의 김미지·김종훈·김주현·이준엽) △들이고 내는 한자리: 의식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한스욕 에플레 교수, 독일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이 발표된다.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이자 한마음과학원장인 혜수 스님은 "공생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의 과학적 연구는 물론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묘공당 대행 선사가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한 유지에 따라, 이런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꾸준히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국제학술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